

**오산, 새 지부장에 이태영씨 선출
회원 결속과 지부 활성화 굳게 결의**

오산지부 지부장 취임식이 지난 10월 28일 YMCA 빌딩 2층 사무실에서 있었다.

20여 회원과 이덕주 경기도 도지회장, 성남, 평택, 송탄 지부장, 관련 업계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오산지부는 그동안의 경과 보고에 이어 신라당 베이커리의 이태영씨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기섭지회장 꼬레엥 새로 오븐

성북구지회 이기섭지회장이 경영하는 꼬레엥과자점이 점포를 다시 꾸미고 지난 10월 31일 피자 꼬레엥과자점으로 새로 문을 열었다.

안양지부, 야유회 및 불우이웃 돕기 펼쳐

안양지부(지부장 이범진)는 10월 19일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서 회원단합을 위한 야유회를 가졌다.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야유회는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등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회원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졌다.

한편 10월 26일 안양시에 거주하는 영세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안양지부는 4호 케이크 16개를 전달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김해지부, 과업인의 날 체육대회 개최

김해지부(지부장 손철배)는 11월 8일 제 7회 과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김해 체육공원

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날 체육대회에



는 건전한 제과업소 정착에 모범을 보인 회원을 대상으로 김해 시장상에 손철배, 정진호, 서정수, 심중섭 씨가 국회의원상에는 김관근, 박수철, 김동명 씨가 수상했다.

**부산광역시지회 9회 과업인 체육대회
화기애애 열띤응원속 금정구 종합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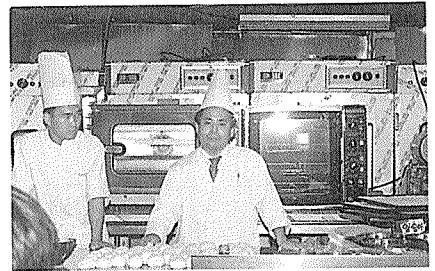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김중수)는 최근 부산사직운동장에서 회원 단합을 위한 제9회 과업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 산하 14개지부가 참가해 줄다리기, 축구, 릴레이 등 3개종목에 걸쳐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에는 금정구가, 준우승은 서구가 각각 차지했으며, 수영구지부가 3위에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행사의 특별시상부문에서는 동구지부가 단체화합상을 받았고, 응원상에 사상구가, 매너상은 사하구, 참가상에는 남구지부가 각각 수상했다.



**부산의 신신공업사 기술세미나 개최
정항우씨가 강사로 실용제품 선보여**

부산의 한 기계업체가 이익의 업계 회원 차원에서 무료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믹서, 오븐 등을 제작 판매하는 신신공업사(대표 이기남)는 최근 생산공장의 확장을 계기로 자체 세미나실을 마련하여 부산지역 제과점업주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용성을 위주로 한 각종 제품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도제과의 정항우씨를 강사로 초청 이날 선보인 제품들은 피자, 바게트를 비롯한 불란서빵류 그리고 케이크 데커레이션까지 참석자들이 직접 실습도 해보는 폭넓은 기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기술인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사장은 "제과업계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매년 부산지역 과업인 대상의 기술세미나를 열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부산 주재기자 강대우)

대전제과 기술경영연구회 세미나 가저

대전제과기술경영연구회가 11월 3일, 4일 이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동경 드리블제과 대표 후지모토 야스마사 씨를 강사로 초빙한 이번 세미나는 파운드 케이크의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조리 빵 20여 종을 선보였다. 대전 제과기술경영연구회는 제과기술의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와 실연을 목적으로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구지부장 윤주경 영풍제과 사장이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제과기술경영연구회의 첫번째 행사로써 앞으로 국내외 유명제과 기술인을 초청하여 낙후된 지방기술과 경영 발전에 힘쓸 계획이다.

(대전주재기자 원귀식)